



안녕하세요? 오순복수녀입니다. 저는 신앙심 깊고 삶에 충실한 부모님의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날이 성모승천일인 8월 15일이라 ‘성모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온 식구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수녀가 되면 좋겠다는 권유를 종종 받았지만, 수도성소라는 느낌이 없었기에



교편생활과 교리교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34세에 다시 권유를 받으면

서 혹시 수도성소가 있는 것을 몰랐을까? 의문이 일어나서 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미사 중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에 “네, 하느님. 알겠습니다.” 엎드려 바로 응답하고 다음 해에 입회했습니다. 하늘에 뜬 구름처럼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양성시기를 보내고 어린이집, 본당, 학교 행정실, 장상연합회사무국, 장애

인직업재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생태공동체 등 주어지는 대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마음 안 깊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가난한 가리봉동 지역에 모아래 분원이 설립되었고 저도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골목 안 빌라에 살면서 동네 청소도 하고, 경로당



할머니들과 놀기도 하고, 새벽인력시장에 가서 간식 나눔도 하면서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주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던 중 우연히 만난 어느 할머니의 흐뭇한 웃음에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하느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지역을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동네로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평소의 기도에 ‘당신의 사랑이 흐르려면 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소망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존재하는 일입니다.





Hello, Sisters! I am Sister Oh, Sun Bok. I was born the youngest of two boys and three girls to parents who were devoted to a faithful Catholic life. I was born on August 15, the day of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so the whole family rejoiced that I was "blessed by Our Lady." By the time I graduated from college, I was often encouraged to become a nun, but I never felt called to become a religious by God, so I enjoyed teaching at school and catechizing at church.



Then, at age 34, someone invited me to consider entering a religious community again. I wondered whether I did not know I had a call by God to a religious vocation. Since the question arose, I began praying to God to show me my way. One day, during mass, I heard: "You did not choose me; I chose you," and said, "Yes, My Lord! I get it." I bowed down, responded immediately and entered the community the following year.

I spent my formation periods as happy as a cloud in the sky. Also, I worked in various ministries, such as a daycare center, parishes,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a school,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e of Major Superiors of Women Religious in Korea, a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a local children's community center, and an ecological community. However, two years ago, a desire to live in poverty with people who are materially began to rise from the depths of my heart.



To my surprise, a Moarae local house was established this year in the poor Garibong-dong area of Seoul, and I was called to minister there. I live in a small house in an alley, clean the neighborhood, chat with the elderly ladies at the senior center in that district, go to the early morning labor market to serve snacks to the laborers, and get to know the area by becoming a local. As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next, I realized that the energy of God's love emanating from us was the most crucial factor in transforming our neighborhood into a joyful, uplifting place through the bright, smiling face of an older woman whom I encountered accidentally on my way.

Since then, I have added to my daily prayer, "Help me to love myself as I am," the wish, "Lord, for Your love to flow from me for others, my love must be present." Love brings joy to our neighbors and brightens the world, so my most important activity with the poor is to be present, holding the hand of the Lord, the source of love.

